토요저널
www.toyonet.co.kr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5면)

이희승 송파구의원 잠실유수지 현장점검…체육시설 안전과 환경개선 논의

생활체육과·치수과와 함께 체육시설 안전 및 주변 환경관리 실태 점검



송파구의회 이희승 의원(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은 10월 30일 송파구청 생활체육과·치수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잠실유수지를 방문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잠실유수지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 전반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관계부서와 함께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 주요 체육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물의 노후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체육시설의 경우 작은 시설 결함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적절한 시기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수지 주변의 녹지와 시설물 관리 상태를 살펴보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주변의 작은 관리 소홀이 공간 전체의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시설 개선 못지않게 일상적인 관리와 세심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잠실유수지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방재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의 본래 기능과 환경적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수지 내 식생을 무조건 제거하거나 인위적인 시설을 추가하기보다는, 현장 여건과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시설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희승 의원은 "잠실유수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인 동시에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이라며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환경적 특성을 존중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